

1. 다음 중 표준어로만 묶인 것은?

- ① 끄나풀 - 새벽녘 - **삼행이** - 떨어먹다
- ② 뜯게질 - **세째** - 수평아리 - **애답다**
- ③ 치켜세우다 - 사글세 - 설거지 - 수강아지
- ④ 보조개 - 솟양 - **광우리** - **강남콩**

[2016년 서울시9급](박재정) [답] ③ [해] 치켜세우다 - 옷깃이나 눈썹 따위를 위쪽으로 올린다, 정도 이상으로 크게 칭찬하다는 의미인 표준어임, 2장 5항 - 사글세(← 삭월세), 표준어 규정 3장 20항 - 설거지하다(← 설겅다), 2장 7항 다만1 - 수강아지(← 솟강아지) [오] ① 표준어 규정 2장 1절 3항 - 끄나풀, 녘, 삼행이(← 삼행이), 떨어먹다(← 떨어먹다) ② 표준어 규정 2장 6항 - 셋째(← 세째), 표준어 규정 3장 20항 - 애달프다(← 애답다). ④ 3장 25항 - 광주리(← 광우리), 2장 5항 - 강남콩(← 강남콩)

2. 다음 중 ㉠~㉣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는 그날 그에게 돈 삼 원을 주었다. 그의 말대로 삼산 학교 앞에 가서 버섯이 참외 장사라도 해보라고. 그리고 돈은 남지 못하면 돌려오지 않아도 좋다 하였다. ㉠**그는 삼 원 돈에 덩실덩실 춤을 추다시피 뛰어나갔다.** 그리고 그 이튿날, “선생님 잡수시라급쇼.” 하고 나 없는 때 참외 세 개를 갖다 두고 갔다. 그리고는 온 여름 동안 그는 우리 집에 열썬하지 않았다.

듣으니 ㉡**참외 장사를 해 보긴 했는데 이내 장마가 들어 밀천만 까먹었고, 또 그까짓 것보다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은 그의 아내가 달아났단 것이다.** 저희끼리 금실은 괜찮았건만 동서가 못 견디게 굴어 달아난 것이라 한다. 남편만 남 같으면 따로 살림 나는 날이나 기다리고 살 것이나 평생 동서 밑에 살아야 할 신세를 생각하고 달아난 것이라 한다.

그런데 요 며칠 전이었다. 밤인데 달포 만에 수건이가 우리 집을 찾아왔다. ㉢**웬 포도를 큰 것으로 대여섯 송이를 종이에 싸지도 않고 맨 손에 들고 들어왔다.** 그는 병긱거리며, 첫마디로, “선생님 잡수라고 사 왔습쇼.” 하는 때였다. 웬 사람 하나가 날썰게 그의 뒤를 따라 들어오더니 다짜고짜로 수건이의 멍살을 움켜 쥐고 끌고 나갔다. 수건이는 그 우둔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꼼짝 못 하고 끌려 나갔다.

나는 수건이가 포도원에서 포도를 훔쳐 온 것을 직각하였다. 쫓아나가 매를 말리고 포도값을 물어 주었다. 포도값을 물어 주고 보니 수건이는 어느 틈에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 다섯 송이의 포도를 탁자 위에 얹어 놓고 오래 바라보며 아껴 먹었다. ㉣**그의 은근한 순정의 열매를 먹듯 한 알을 가지고도 오래 입 안에 굴려 보며 먹었다.**

- 이태준, <달밤>

- ① ㉠: 황수건의 행위를 통해 참외 장사가 안 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 ② ㉡: 황수건에 대한 정보가 ‘나’에 의해 요약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 ③ ㉢: ‘포도’는 장사 밀천을 대준 ‘나’에 대한 황수건의 고마움의 표시이다.
- ④ ㉣: 인물을 바라보는 ‘나’의 호의적인 태도를 읽을 수 있다.

[2016년 서울시9급](박재정) [답] ① [해] 밑줄 친 부분의 의미는 문맥에서 파악해야 한다. ㉠은 ‘나’가 ‘황수건’에게 3원을 주면서 장사를 해 보라는 제안에 기뻐하는 모습이다. 3원을 받고 기뻐하는 황수건의 모습에서 앞으로 참외 장사가 안 될 것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3. 다음 중 음운변동의 성격이 나머지 셋과 가장 다른 것은?

- ① ‘옳다’는 [올타]로, ‘옳지’는 [올치]로 발음된다.

- ② '주다'와 어미 '-어라'가 만나 '줘라'가 되었다.
- ③ '막혀'는 [마켜]로, '맞힌'은 [마친]으로 발음된다.
- ④ '가다'와 어미 '-아서'가 만나 '가서'가 되었다.

[2016년 서울시9급](박재정) 답 ④ 해 ① 'ㅎ + ㄷ → ㅌ, ㅎ + ㅈ → ㅊ'으로 된 자음 축약이다. ② 'ㅌ + ㅌ → ㄷ'이 된 모음 축약이다. ③ 'ㄱ + ㅎ → ㅋ, ㅈ + ㅎ → ㅊ'이 된 자음 축약이다. ④ '가 + 아서 → 가서'가 됐으므로 모음 탈락(동음 탈락)이다.

4.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의 품사가 다른 하나는?

- ① 그 가방에 소설책 **한** 권이 들어 있었다.
- ② 넓은 들판에는 농부가 **한들** 눈에 떨 뿐 한적했다.
- ③ **두** 사람은 서로 다투다가 화해했다.
- ④ 보따리에서 석류가 **두세** 개 굴러 나왔다.

[2016년 서울시9급](박재정) 답 ② 해 ①은 '권'을 수식한, ③은 '사람'을 수식하는, ④는 '개'를 수식하는 수 관형사이다. 그러나 ②는 '하나나 둘쯤 되는 수'를 나타내는 수사이다.

5. 다음 중 고유어의 뜻풀이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노느매기: 물건을 여러 몫으로 나누는 일
- ② 비나리치다: 갑자기 내린 비를 피하려고 허둥대다.
- ③ 가라사니: 사물을 판단할 수 있는 지각이나 실마리
- ④ 던적스럽다: 하는 짓이 보기에 매우 치사하고 더러운 데가 있다.

[2016년 서울시9급](박재정) 답 ② '비나리치다'는 '아침을 해가며 환심을 사다'의 뜻인 순우리말이다.

6. 다음 중 외래어 표기가 모두 옳은 것은?

- ① 벌브(bulb), **옐로우(yellow)**, 플래시(flash), 워크숍(workshop)
- ② **알콜(alcohol)**, 로봇(robot), 보트(boat), **씨클(circle)**
- ③ 밸런스(balance), **도너츠(doughnut)**, 스위치(switch), 리더십(leadership)
- ④ 배지(badge), 앙코르(encore), 콘테스트(contest), 난센스(nonsense)

[2016년 서울시9급](박재정) 답 ④ 해 ① 옐로우 → 옐로 ② 알콜 → 알코올, 씨클 → 서클 ③ 도너츠 → 도넛

7. 다음은 신문 보도와 그에 대한 해당 기관의 해명이다. 이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신문 보도	(1) 유학생 등 재외국민들은 내국인과 달리 아이핀 발급이 어려움 (2) 행정자치부가 관리하는 공공아이핀은 공인인증서나 주민등록증, 거주여권 등으로 발급이 가능하나, 방문(PM)여권을 소지한 유학생, 주재원 등은 발급이 불가능하며, 주민등록증이 있더라도 단독세대원은 공공아이핀 발급이 불가능
해명 자료	(1) 유학생, 주재원 등 방문여권 소지자는 <b>본인과 국내에 거주하는 세대원의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나 대리인(가족관계) 신청</b> 으로 공공아이핀 발급이 가능하므로 공공아이핀은 해외에서도 이용이 가능 (2) 유학생, 주재원 등은 통상 해외이주 시 본인의 주민등록을 부모나 친인척 주소지로 이전하기 때문에 국내 주소지가 단독세대원인 경우는 거의 없음

- ① 신문 보도에서, 같은 내용을 (1)에서는 개략적으로, (2)에서는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② 신문 보도에 따르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서도 아이핀을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③ 해명 자료(1)의 밑줄 친 부분은 접속 대상이 대등하지 않아 부자연스러워진 표현이다.  
 ④ 해명 자료(2)는 단독세대원이 겪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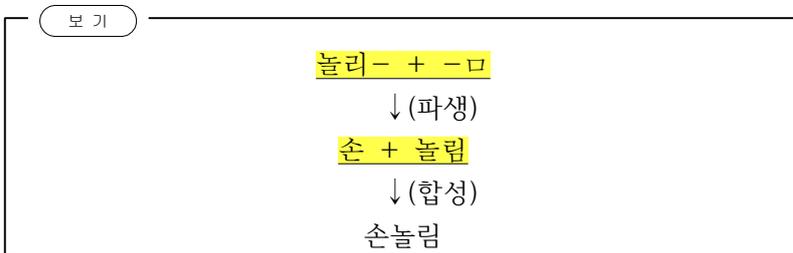
[2016년 서울시9급](박재정) 답 ④ [해] 해명 자료 (2)를 보면 유학생, 주재원 등은 이주할 때 부모나 친인척 주소지로 이전하기 때문에 국내 주소지가 단독세대원인 경우가 없다고 해명했을 뿐 만약 단독세대원일 경우 여전히 공공아이핀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8. 다음 중 단어의 발음이 옳은 것끼리 묶인 것은?

- ① 디근이[디그시], 흠이불[훈니불]  
 ② 똥는[똥는], 밝히다[발키다]  
 ③ 핏다[할따], 넓죽하다[넙죽카다]  
 ④ 흠만[흑만], 동원령[동:원녕]

[2016년 서울시9급](박재정) 답 ① 해 ① 표준 발음법 4장 16항 - 디근이[디그시], 7장 29항 - 흠이불[훈니불]. ② 5장 20항 불임 - 똥는[똥는], 12항 불임1 - 밝히다[발키다]. ③ 4장 10항 - 핏다[할따]. 4장 10항 다만 - 넓죽하다[넙죽카다]. ④ 5장 18항 - 흠만[흑만], 5장 20항 다만 - 동원령[동:원녕].

9. 다음 중 단어의 짜임이 <보기>와 같은 것은?



- ① 책꽃이 ② 헛소리 ③ 가리개 ④ 흔들림

[2016년 서울시9급](박재정) 답 ① 해 '책꽃이'는 '꽃-'에 접미사인 '이'가 결합한 '꽃이'에 다시 '책'이 결합하여 '책꽃이'가 되었으므로 <보기>와 단어의 짜임이 동일하다. [오] ② 헛소리 - 헛(접두사) + 소리(어근) ③ 가리-(용언의 어간) + 개(접사) ④ 흔들(용언의 어간) + 리(피동 접사) + -ㄱ(명사형 전성 어미)의 결합

10. 다음 중 괄호 안의 한자가 옳은 것은?

- ① 정직함이 유능함보다 중요(仲要)하다.
- ② 대중(對衆) 앞에서 연설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 ③ 부동산 중개사(重介士)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 ④ 집중력(集中力)이 떨어지지 않도록 속면을 취해야 한다.

[2016년 서울시9급](박재정) ㉮ ㉯ 集中力(모을 집, 가운데 중, 힘 력) - 마음이나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 힘. [오] 重要(무거운 중, 요긴할 요) - 귀중하고 요긴함. 大衆(큰 대, 무리 중) - 수많은 사람의 무리. 仲介士(버금 중, 깎 개, 선비 사) -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고 상행위를 대리하거나 매개하여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11. 다음 중 <보기>의 작품 속 시대적 배경이 같은 것은?

보기

오호, 여기 줄지어 누웠는 녀들은  
눈도 감지 못하였겠고나.

어제까지 너희의 목숨을 겨눠  
방아쇠를 당기던 우리의 그 손으로  
씩어 문드러진 살덩이와 뼈를 추려  
그래도 양지바른 두메를 골라  
고이 파묻어 떼마져 입혔거니  
죽음은 이렇듯 미움보다, 사랑보다도  
더 너그러운 것이로다.

- 이호우, <초토의 시 8 - 적군묘지 앞에서>

- ① 김주영의 <객주>
- ② 이범선의 <오발탄>
- ③ 박경리의 <토지>
- ④ 황석영의 <장길산>

[2016년 서울시9급](박재정) ㉮ ㉯ ① 김주영의 <객주>는 19세기 후반기 한말의 상인 사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변동을 그린 작품으로서, 보부상과 노비, 타락한 관료, 부상, 농민 등 사회계의 갈등과 유착을 다루면서 개항 이후의 역사적 진전을 서사화하였다. ② 이범선이 1959년에 발표한 소설 <오발탄>은 월남한 한 가족의 불행한 삶을 통해 전후 한국 사회의 공핍상과 구조적 모순을 상징적으로 그리고 있다. ③ 박경리의 <토지>는 하동 평사리를 중심으로 서울과 간도 지방을 잇는 공간적 배경과 구한말부터 해방에 이르는 시간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국의 근대사와, 풍습, 민중의 생활 습관, 건강한 생명력을 재현한 대하소설이다. ④ 황석영의 <장길산>은 조선 효종 말기부터 숙종까지, 구월산, 금강산 및 경기도 일대를 배경으로 민중들의 힘에 의한 대동 세상의 구현 의지를 그린 작품이다.

12. 다음 중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주동문	㉠ 아이가 밥을 먹었다. ↓
사동문	㉡ 어머니가 아이에게 밥을 먹게 하였다.
	㉢ 마당이 넓다. ↓
	㉣ 인부들이 마당을 넓혔다.

- ① ㉠, ㉡을 보니, 사동문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군.
- ② ㉠, ㉡을 보니, 주동문의 주어는 사동문에서 다른 문장 성분으로 나타날 수 있군.
- ③ <보기>를 보니, 동사만 사동화될 수 있군.
- ④ <보기>를 보니,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꾸면 서술어의 자릿수가 변화할 수 있군.

[2016년 서울시9급](박재정) ㉠ ㉡ ① ㉠은 '-게 하다'가 붙어 사동문이 된 통사적 사동문이고, ㉡은 사동 접사인 '히'가 붙어 사동문이 된 파생적 사동문이다. ② ㉠은 주동문의 주어가 부사어로 바뀌었고, ㉡은 주동문의 주어가 목적어로 바뀌었다. ③ '넓다'는 형용사이지만 사동문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동사만 사동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④ ㉠ 두 자리 서술어. ㉠ 세 자리 서술어. ㉡ 한 자리 서술어. ㉡ 두 자리 서술어.

13.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하늘, 바람, 심지어, 어차피, 주전자와 같은 단어들은 한자로 적을 수 없는 고유어이다.
- ② 학교, 공장, 도로, 자전거, 자동차와 같은 단어들은 모두 한자로도 적을 수 있는 한자어이다.
- ③ 고무, 담배, 가방, 빵, 냄비와 같은 단어들은 외국에서 들어온 말이지만 우리말처럼 되어 버린 귀화어이다.
- ④ 눈깔, 아가리, 주둥아리, 모가지, 대가리와 같이 사람의 신체 부위를 점잖지 못하게 낮추어 부르는 단어들은 비어(卑語)에 속한다.

[2016년 서울시9급](박재정) ㉠ ㉡ 심지어(甚至於), 어차피(於此彼), 주전자(酒煎子)는 고유어가 아니라 한자로 적을 수 있는 한자어이다.

14.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 ㉠ 철수 밥 먹는다.
- ㉡ 그 사람이 그런 심한 말을 하다니.
- ㉢ 오늘 내가 본 영화는 세계 10대 영화에 속한다.
- ㉣ 민한경 씨가 익명의 독지가였음이 밝혀졌다.

- ① ㉠에서 '철수', '밥'은 단어이자 어절로서 각각 주어, 부사어의 문법적 기능을 수행한다.
- ② ㉡에서 '그 사람이', '그런 심한 말을'은 각각 주어, 목적어 성분이 절로 실현된 것이다.
- ③ ㉢에서 '오늘 내가 본'은 관형어 기능을 하며 절로 실현되어 있다.
- ④ ㉣에서 '민한경 씨가 익명의 독지가였음이'는 목적어 성분으로서 명사절로 실현되어 있다.

[2016년 서울시9급](박재정) ㉠ ㉡ 철수(가) 밥(을) 먹는다 - 철수와 밥은 조사가 생략된 단어이자 띄어쓰기의 단위원 어절로 문장 내에서 '주어', '목적어'의 역할을 한다. ② 절이 되려면 주어와 서술어가 있어야 하는데 '그 사람이'는 서술어가 없다. 따라서 절이라고 하긴 어렵다. ③ '오늘 내가 본'은 '영화'를 수식하는 관형어의 역할을 하며 '내가 보다'는 주어와 서술어의 구조이므로 절이라고 할 수 있다. ④ 목적어가 아니라 주어이다.

15.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을 의미하는 한자성어는?

사원 여러분, 이번 중동 진출은 이미 예산이 많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던 일을 중도에서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이번 위기를 극복해야만 회사가 삽니다. 어려움과 많은 문제들이 심적으로는 불안하겠지만 조금만 더 참고 끝까지 함께 갑시다.

- ① 登高自卑 ② 角者無齒 ③ 騎虎之勢 ④ 唇亡齒寒

[2016년 서울시9급](박재정) ㉠ ㉡ ① 登高自卑 - 높은 곳에 오르려면 낮은 곳에서부터 오른다는 뜻. ② 角者無齒 - 뿔이 있는 짐승은 이가 없다는 뜻으로,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재주나 복을 다 가질 수 없다는 말. ③ 騎虎之勢 - 호랑이를 타고 달리는 형세라는 뜻으로 이미 시작한 일을 중도에서 그만둘 수 없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④ 唇亡齒寒 -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뜻으로 서로 이해관계가 밀접한 사이에 어느 한쪽이 망치면 다른 한쪽도 그 영향을 받아 온전하기 어려움을 일컫는다.

16. <보기>의 문학사적 사실들을 발생 순서대로 배열한 것은?

보기

㉠ <삼대>, <흙>, <태평천하> 등 다양한 장편소설들이 발표되었다.

㉡ 이광수의 <무정>이 <매일신보>에 연재되어 세간의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 <창조>, <백조>, <폐허> 등의 동인지가 등장하고 <조선일보>, <동아일보>와 같은 민간 신문들이 발행되었다.

㉣ <인문평론>, <문장> 등 우수한 문학잡지들과 한글 신문 등의 발행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 이인직의 <혈의 누>, 이해조의 <자유종>과 같은 소설들이 발표되었다.

- ① ㉡ - ㉣ - ㉠ - ㉢ - ㉤
- ② ㉡ - ㉣ - ㉢ - ㉤ - ㉠
- ③ ㉣ - ㉡ - ㉢ - ㉠ - ㉤
- ④ ㉣ - ㉢ - ㉠ - ㉡ - ㉤

[2016년 서울시9급](박재정) 답 ③

해 ㉠ 1930년대 ㉡ 1910년대 ㉢ 1920년대 ㉣ 1940년대 ㉤ 개화기 문학(1894년~1908년)

17. <보기>는 '비치다'에 대한 사전의 뜻풀이이다. 다음 중 각 뜻에 대한 예문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① 【…에】

- ① 빛이 나서 환하게 되다.
- ② 빛을 받아 모양이 나타나 보이다.
- ③ 물체의 그림자나 영상이 나타나 보이다.
- ④ 뜻이나 마음이 밖으로 드러나 보이다.
- ⑤ 투명하거나 얇은 것을 통하여 드러나 보이다.

② 【…에/에게 …으로】

무엇으로 보이거나 인식되다.

③ 【…에/에게 …을】

- ① 얼굴이나 눈치 따위를 잠시 또는 약간 나타내다.
- ② 의향을 떠보려고 슬쩍 말을 꺼내거나 의사를 던지시 깨우쳐 주다.

① ① ①: 창문을 종이로 가렸지만 그래도 안이 **비친다**.

- ② ㉠ ② : 만년설이 쌓인 산이 호수에 **비쳤다**.
- ③ ㉡: 동생에게 결혼 문제를 **비켰더니** 그 자리에서 펄쩍 뛰었다.
- ④ ㉢ ①: 글씨를 흘려서 쓰면 성의 없는 사람으로 **비치기** 쉽다.

[2016년 서울시9급](박재정) ㉠ ② 산이 호수에 나타나 보인 것이므로 ㉠-③이 적절하다. [오] ① 종이가 얇아 안이 드러나는 것이므로 ㉠-⑤가 적절하다. ③ 동생의 의향을 떠보려고 결혼 문제를 꺼낸 것이므로 ㉢-②가 적절하다. ④ 글씨를 흘려서 쓰면 성의 없는 사람으로 인식되는 것이므로 ㉡가 적절하다.

18. 훈민정음 해례본에 나오는 한글의 제자 원리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초성은 발음기관을 본떠 만들었는데, ‘ㄱ’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뜬 것이다.
- ② ‘ㄱ, ㄴ, ㄹ, ㅅ, ㅇ’ 5개의 기본 문자에 가획의 원리로 ‘ㅋ, ㆁ, ㆅ, ㄷ, ㅌ, ㅊ, ㅍ, ㅈ, ㅊ, ㅎ’ 총 8개의 문자를 만들었다.
- ③ 문자의 수는 초성 10자, 중성 10자, 종성 8자로 모두 28자이다.
- ④ 연서(連書)는 ‘ㅇ’을 이용한 것으로서 예로는 ‘빙’이 있다.

[2016년 서울시9급](박재정) ㉠ ④ 연서법은 입술소리(ㄹ, ㅂ, ㅍ, ㅃ) 아래에 ‘ㅇ’을 이어 써서 입술 가벼운 소리인 순경음을 만드는 방법이다. [오] ① 아음인 ‘ㄱ’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뜬 것이다. 참고로 혀소리(설음)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뜬 것이다. ② ㅋ, ㆁ, ㆅ, ㄷ, ㅌ, ㅊ, ㅍ, ㅈ, ㅊ, ㅎ 등 총 9개의 자음이다. ③ 세종대왕님께서 만드신 글자는 초성(자음) 17자, 중성(모음) 11자 등 총 28자를 만드셨다.

19. 다음 중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 ① 대화를 ▽하면 ▽할수록 ▽타협점은 ▽커녕 ▽점점 ▽갈등만 ▽커지게 ▽되었다.
- ② 창문 ▽밖에 ▽소리가 ▽나서 ▽봤더니 ▽바람 ▽소리 ▽밖에 ▽들리지 ▽않았다.
- ③ 그 ▽만큼 ▽샀으면 ▽충분하니 ▽가져갈 ▽수 ▽있을만큼만 ▽상자에 ▽담으렴.
- ④ 나는 ▽나대로 ▽갈 ▽데가 ▽있으니 ▽너는 ▽네가 ▽가고 ▽싶은 ▽데로 ▽가거라.

[2016년 서울시9급](박재정) ㉠ ④ ㉠ ‘은커녕’은 보조사이므로 ‘타협점은커녕’과 같이 붙여 써야 한다. ② 앞에 있는 ‘밖에’는 명사인 ‘밖’에 조사인 ‘에’가 결합한 단어로 ‘창문▽밖에’를 쓰는 것이 맞지만 뒤에 있는 ‘밖에’는 조사이므로 ‘소리밖에’와 같이 붙여 쓴다. ③ 앞에 있는 ‘만큼’은 조사이므로 ‘그만큼’과 같이 써야 하고, 뒤에 있는 ‘만큼’은 의존명사이므로 ‘있을▽만큼’과 같이 띄어 써야 한다.

20.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의 한자가 옳은 것은?

- ① 溫古知新
- ② 麥秀之嘆
- ③ 識者憂患
- ④ 左考右眄

[2016년 서울시9급](박재정) ㉠ ② ㉠ ① 溫故知新(따뜻할 온, 연고 고, 알 지, 새 신) -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서 새것을 앎. ② 麥秀之嘆(보리 맥, 빼어날 수, 갈 지, 탄식할 탄) - 고국의 멸망을 한탄함을 이르는 말. ③ 識字憂患(알 식, 글자 자, 근심 우, 근심 환) - 학식이 있는 것이 오히려 근심을 사게 됨. ④ 左顧右眄(왼 좌, 돌아볼 고, 오른쪽 우, 결눈질할 면) - 이쪽저쪽을 돌아본다는 뜻으로, 앞뒤를 재고 망설임을 이르는 말.